인 터 뷰(II)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 동부관리사무소 (정릉 지역) 운영과 이 평 규 계장과 함께

탐방객 여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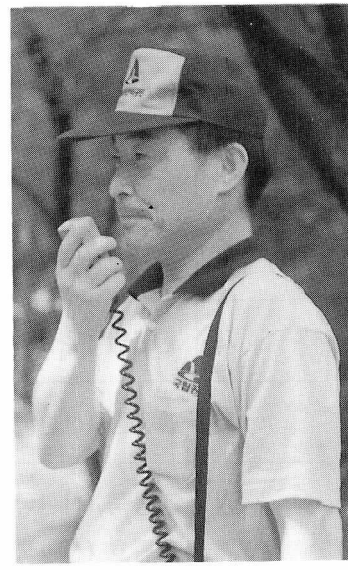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맑고 깨끗한 공원을 위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국립공원내에서는 취사야영이 금지되어 있으며, 식물, 물고기, 매미 등의 채집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시고, 고성방가, 과다노출 등 탐방질서 저해 행위를 자제합시다.

여러분! 즐겁고 유익하게 보내신 후 하산시는 여러분의 쓰레기를 말끔히 수거합시다. 남들이 버렸다고 덩달아 버리지 마시고, 남들의 쓰레기도 수거하는 봉사심을 발휘합시다.

사랑하는 후손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동부지역에 울려 퍼지는 이 계도 방송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산이 너무나 좋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입사하게 되었다는, 현재 정릉 북악지역 현장을 총괄하여 자연보호, 청소, 시설관리 업무를 맡아 열심히 북한산을 오르내리며 탐방객들을 계도하는데 여념이 없는 북한산 동부관리사무소 운영과 이평규 계장이 그 주인공이다.

무더위에 빨갛게 익은 얼굴 위로 땀이 비오듯 쏟아져 유니폼이 젖어도 즐거

움이 하나 가득한 얼굴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넘쳐 흐르는 모습이다.

한쪽 어깨에는 자그마한 **배낭**을, 다른 어깨에는 **계도용 핸드 마이크**를 메고, 또 한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탐방객들의 계도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평규 계장을 만나, 국립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소임을 하며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연보호의 파수꾼** 중의 한사람으로, 요즈음 우리 국민들의 **국립공원 이용실태** 및 **문제점,** 직접 목격한 자연훼손 실태 등을 들어 보았다.(1996. 8. 3)

- 편집자 주 -

▶ 한창 무더위로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일 직접 탐방객들을 계도하면서 절실히 느끼시는 우리 국민들의 국립공원 이용 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요즈음 하루 탐방객의 수가 하루 평균 9천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주로 산에 오를 때 먹으러 가는 것이 주가 되는 탐방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됩니다.
일전에 모선교사가 북한산을 방문하여 산에 오르더니, 조용히 눈을 감고 새소리, 매미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등을 들으며 명상에 잠겨 정서순화의 계기로 삼는 것을 보고, 충격적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라디오, 녹음기, 고성방가의 측면에서 탈피하여 자연과의 동화, 정서순화가 주가 되는 탐방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직접 목격하신 심각한 자연훼손 실태를 한가지 말씀해 주신다면?

▷ 북한산 형제봉에서 광신도들이 그들의 의식을 지내면서 앞에 소나무가 가린다고 소나무를 벌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끔 상식밖의 행동들로 충격을 받곤 합니다.

▶ 이용객이 공휴일에 몰리는 관계로 평일보다 공휴일에 더 바쁘시고 공휴일 대신 평일에 휴무하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가족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 물론,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가족들은 습관화되어 있어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부모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들은 한달에 한번 정도 가족과 함께 휴일을 보낼 시간을 준다면 가정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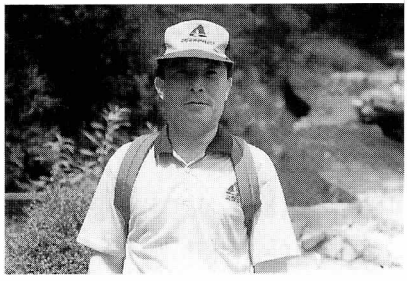
▶ 하시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입니까?

▷ 핸드마이크를 들고 직접 현장에서 계도 방송시 탐방객들이 박수를 치며 호응을 해 줄 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 반대로, 업무를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 국립공원의 잘못된 이용에 대해서는 계도를 우선으로 하나, 이에 응해주지 않거나 반항을 할때, 이를 시정할만한 강력한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힘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계도 임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공원내 사법권이 부여된다면 국립공원 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산에 항상 가지고 올라 가시는 그 배낭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 산에 오를 때 필수적으로 챙기는 이 배낭에는 응급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구급약, 휴지, 비닐 주머니, 적발 보고서, 흡연하는 탐방객을 계도하며 나눠 주는 1회용 재털이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우리가 흔히 찾는 산 ……. 몇몇 몰지각한 탐방객들에 의해 마구 버려지는 많은 쓰레기들, 겨우 되살아난 계곡물 속의 물고기, 가재 등을 잡는 행위 등 아주 사소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의 뒤떨어진 사고방식이 바로 자연 훼손의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